

기출의 파급효과 국어 LEET 선별
(독서 EXTENSION)
- 4주차 -

제작 : 박영호, 최지훈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 LEET [7~10]

김춘수와 김수영은 대척되는 위치에서 한국 시의 현대성을 심화시킨 시인들이다. 김춘수는 순수시론의 일종인 ㉠ 무의미시론으로 새로운 해체시를 열어젖혔고, 김수영은 '온몸의 시학'으로 알려진 ㉡ 참여시론으로 현실참여시의 태두가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활동했던 두 시인은 개인의 자유와 실존이 위협을 받던 1960년대의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실존 의식과 윤리관을 예각화하면서 시적 언어와 창작 방법에 대한 성찰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두 모더니스트가 선택한 미학적 실험은 그 방향이 사뭇 달랐다.

김춘수는 「꽃」과 같은 자신의 1950년대 시가 '관념의 기갈'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진단한다. 그 결과 시적 언어는 제 구실의 가장 좁은 한계, 즉 관념의 의미 전달의 수단에만 한정되었고 시는 대상의 재현과 모방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추상적인 관념을 전달하는 이미지·비유·상징과 같은 수사에 대한 집착은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김춘수는 말의 피안에 있는 관념이나 개인의 실존을 짓누르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공포를 느꼈다. 이 공포에서 벗어나 자아를 보존하려는 충동이 그를 '생의 구원'으로서의 시 쓰기로 이끈 것이다. 그 방법으로 김춘수는 언어와 이미지의 유희, 즉 기의(記意) 없는 기표(記標)의 실험을 시도하였다. 기의에서 해방된 기표의 유희는 시와 체험, 시와 현실의 연속성을 끊는 것은 물론 역사 현실과 화해할 수 없는 자율적인 시를 만드는 원천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비유와 상징은 물론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까지 시에서 배제하는 기법 및 형식 실험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하여 의미를 덧씌울 중심 대상을 붕괴시키고, 마침내 대상이 없는 이미지 그 자체가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무의미 상태에 도달하고자 했다. 물론 대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과정에는 창작자의 의식과 의도가 개입해야 한다. 이 점에서 무의미시는 인간의 무의식을 강조한 초현실주의와 차이가 있지만 자유연상 혹은 자동기술과 예술적 효과가 흡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김춘수는 언어 기호를 음소 단위로까지 분해하거나 시적 언어를 주문이나 염불 소리 같은 리듬 혹은 소리 이미지에 근접시키기도 하였다. 김춘수의 「처용단장」 제2부는 이런 시적 실험들의 진면목을 드러낸 작품이다.

김춘수에게 시 쓰기란 현실로 인해 빚어진 내면의 고뇌와 개인적 실존의 위기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생을 구원하는 현실 도피의 길이었다. 이와 달리 김수영에게 시 쓰기란 자유를 억압하는 군사 정권과 대결하고 정치적 자유의 이행을 촉구하며 공동체의 운명을 노래하는 것이었다. 4·19 직후의 풍자시는 참여시 실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참여시론의 핵심은 진정한 자유의 이행을 위해 ㉢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란 모순어법으로 집약된다. 이는 내용과 형식은 별개가 아니며 시인의 사상과 감성을 생활(현실) 속에서 언어로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시의 형식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 까닭에 시의 현대성은 실험적 기법의 우열보다는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시인의 양심에서 찾아야 한다.

물론 김수영도 김춘수가 추구한 무의미시의 의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 역시 '무의미'란 의미 너머를 지향하는 욕망,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려는 것이고 시와 세계의 화해 불가능성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김춘수가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너무 협소한 것이라고 여겼다. 이런 점에서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 무의미의 추구도 되겠지만, '의미'를 껴안고 들어가서 그 '의미'를 구제함으로써 무의미에 도달하는 길"도 있다는 김수영의 말은 주목된다. 그는 김춘수처럼 시어의 무의미성에 대한 추구로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는 것도 현대시가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실험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시어의 의미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마침내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시인의 태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수영은 김춘수의 궁극적인 꿈이기도 했던 시와 예술의 본질 혹은 존재 방식으로서의 무의미성까지 도달하기 위해 오히려 시어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시와 현실의 접촉을 늘려 세계 변혁을 꾀하는 현실 참여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실제로 그의 참여시는 시와 산문의 언어적 경계를 허물어 산문적 의미까지 시에 담아내려 했다. 이를 통해 그는 일상어·시사어·관념어, 심지어 비속어와 욕설까지 폭넓게 시어로 활용하여 세계의 의미를 개진하고 당대 현실을 비판할 수 있었다.

사실 김춘수의 시적 인식은 김수영의 그것에 대한 대타 의식의 소산이다. 김춘수는 김수영을 시와 생활을 구별하지 못한 '로맨티스트'였지만 자신의 죽음까지도 시 쓰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훌륭한 시인이라고 평가했다. 김춘수는 세계에 대한 허무감에서 끝내 벗어날 수 없었던 자신과 달리 김수영이 현대 사회의 비극적

운명에 '온몸'으로 맞서는 시인의 윤리를 실천한 점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김수영의 시와 시론에서 시와 예술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발견했던 것이다.

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세계에 대한 허무 의식을 극복했다.
- ② ㉠은 시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나 의미가 아니라 형식이나 기법이라고 여겼다.
- ③ ㉡은 해체시 실험에 치중하면 현실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다.
- ④ ㉡은 시어의 범위와 시의 내용을 확장하여 시의 현실성을 강화했다.
- ⑤ ㉠과 ㉡은 모더니스트였던 시인의 예술관과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 준다.

2. 윗글의 김수영에 대한 서술을 근거로 ㉠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동일한 존재가 행위의 수단이자 행위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 ② ㉠은 현실 도피 대신에 현실 참여를 시인의 윤리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 ③ ㉠은 정치 현실로 인해 억압된 자유를 되찾으려 했던 시인의 고뇌를 담고 있다.
- ④ ㉠의 행위 자체가 형식인 시에서 내용은 시인이 느끼는 사상과 감성에 관련된다.
- ⑤ ㉠은 실험적 기법이 시의 현대성을 성취하는 근본 요건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3. 김춘수와 김수영의 공유된 인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동체적인 삶의 지향을 통한 자아의 보존
- ② 개인의 실존을 억압하는 현실의 부조리성
- ③ 의미가 제거된 시어의 활용 가능성
- ④ 시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무의미성
- ⑤ 시와 세계의 화해 불가능성

4. 윗글에 비추어 <보기>의 시 쓰기 방법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불러다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는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의 누이는 어디 있는가,
 말더듬이 일자무식 사바다는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의 누이는 어디 있는가,
 불러다오
 멕시코 옥수수 는 어디 있는가
 - 김춘수, 「처용단장」 제2부에서

- ① 김춘수는 <보기>에 외래어와 관념어를 사용하면 시적 언어를 확장하고 시와 산문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 ② 김춘수는 <보기>의 염불 소리 같은 강렬한 청각 영상과 리듬감은 현실이 초래했던 고뇌와 공포를 상징한다고 여겼을 것이다.
- ③ 김수영은 <보기>가 '사바다'를 비하하여 '말더듬이 일자무식'에 비유함으로써 당대 현실을 풍자한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 ④ 김수영은 <보기>의 무의미성이 시어의 의미를 포기한 결과이므로 진정한 자유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 ⑤ 김춘수와 김수영은 모두 <보기>가 의미를 덧씌울 대상을 붕괴시킴으로써 새로운 내용적 요소를 담을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1~4]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김춘수와 김수영은 대척되는 위치에서 한국 시의 현대성을 심화시킨 시인들이다. 김춘수는 순수시론의 일종인 ㉠ 무의미시론으로 새로운 해체시를 열어젖혔고, 김수영은 '온몸의 시학'으로 알려진 ㉡ 참여시론으로 현실참여시의 태두가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활동했던 두 시인은 개인의 자유와 실존이 위협을 받던 1960년대의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실존 의식과 윤리관을 예각화하면서 시적 언어와 창작 방법에 대한 성찰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두 모더니스트가 선택한 미학적 실험은 그 방향이 사뭇 달랐다.

화제를 제시하는 문단입니다. 김춘수의 무의미시론과 김수영의 참여시론을 비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일 거예요. 각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읽고, 두 키워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김춘수와 김수영은 대척되는 위치에서 한국 시의 현대성을 심화시킨 시인들이다.

김춘수와 김수영의 입장을 대비할 거라고 언급하는 문장입니다. 두 사람이 '대척되는 위치'에 있다고 해요. 당연하게도 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읽어야겠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각자의 방식을 통해 한국 시의 현대성을 심화시켰을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곧 화제이겠군요.

김춘수는 순수시론의 일종인 ㉠ 무의미시론으로 새로운 해체시를 열어젖혔고, 김수영은 '온몸의 시학'으로 알려진 ㉡ 참여시론으로 현실참여시의 태두가 되었다.

두 사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춘수는 순수시론 중 하나인 '무의미시론'을, 김수영은 '온몸의 시학'으로 알려진 '참여시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키워드를 군집화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런데 단어가 어렵진 않습니다. 정의를 주지 않았지만 단어 뜻기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무의미/시론은 말 그대로 의미가 없는 시를, 참여/시론은 현실에 참여하는 시를 중시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미리 감을 잡고 넘어가주는 것이 좋겠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활동했던 두 시인은 개인의 자유와 실존이 위협을 받던 1960년대의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실존 의식과 윤리관을 예각화하면서 시적 언어와 창작 방법에 대한 성찰을 제시하였다.

문장이 길고 어렵지만 사실상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적 언어와 창작 방법'을 제시했을까? 무의미시론과 참여시론에서 제시하는 시적 언어와 창작 방법은 어떻게 다를까? 이것만 궁금해하시면 됩니다.

방금도 언급했지만, '시적 언어와 창작 방법'이 곧 두 이론의 비교지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시인이 각각 '시적 언어와 창작 방법'에 대한 성찰을 제시했다고 하니까요. 이것 자체가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모더니스트가 선택한 미학적 실험은 그 방향이 사뭇 달랐다.

네, 하지만 아주 친절합니다. 앞 문장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모더니스트'는 김춘수와 김수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미학적 실험'은 방향이 달랐다고 해요. 앞에서부터 생각했지만 차이점이 제시되었다는 생각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비교지점 잡을 준비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미학적 실험'이라는 것은 곧 '시적 언어와 창작 방법'일 겁니다. 두 사람이 제시한 것이 '시론'이니깐 여기에서 말하는 '미학적 실험'은 시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일 테고, 그럼 맥락상 이 실험은 '시적 언어와 창작 방법'이 되겠죠? 재진술임을 인지하고 가볍게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순간 화제가 명확하게 잡혀야 합니다. "김춘수(무의미시론)와 김수영(참여시론)의 비교지점 - 시적 언어와 창작 방법" 이걸 화제로 잡고 넘어갈게요.

#2문단

김춘수는 「꽃」과 같은 자신의 1950년대 시가 '관념'에 의 기갈'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진단한다. 그 결과 시적 언어는 제 구실의 가장 좁은 한계, 즉 관념과 의미 전달의 수단에 한정되었고 시는 대상의 재현과 모방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추상적인 관념을 전달하는 이미지·비유·상징과 같은 수사에 대한 집착은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김춘수는 말의 피안에 있는 관념이나 개인의 실존을 짓누르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공포를 느꼈다. 이 공포에서 벗어나 자아를 보존하려는 충동이 그를 '생의 구원'으로서의 시 쓰기로 이끈 것이다. 그 방법으로 김춘수는 언어와 이미지의 유희, 즉 기의(記意) 없는 기표(記標)의 실험을 시도하였다. 기의에서 해방된 기표의 유희는 시와 체험, 시와 현실의 연속성을 끊는 것은 물론 역사 현실과 화해할 수 없는 자율적인 시를 만드는 원천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비유와 상징은 물론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까지 시에서 배제하는 기법 및 형식 실험으로 이어졌다.

김춘수의 무의미시론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추상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비유적인 재진술'을 잡으면서 독해해야 합니다. 1문단에서 무의미시론의 정의를 스스로 떠올리고 이를 중심으로 읽는다면 '비유와 상징, 이미지의 배제'와 같은 포인트를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김춘수는 「꽃」과 같은 자신의 1950년대 시가 '관념'에 의 기갈'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진단한다.

김춘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술의 초점을 '김춘수'의 입장에 맞추고 있다는 점을 캐치합니다. 자신의 시에 대한 성찰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관념에 의 기갈'이라고 합니다. '기갈'이라는 어휘는 낯설기 때문에 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비유적 표현이 진짜 중요하다면 뒤에서 재진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쉬운 표현으로 김춘수의 핵심이 제시된다면 그때 캐치해줍니다.

***기갈 :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만약 '기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김춘수 자신이 '관념'에 지나치게 얽매어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관념에 얽매는 것이 '무의미시론'과 어떻게 엮일지를 중심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시적 언어는 제 구실의 가장 좁은 한계, 즉 관념과 의미 전달의 수단에 한정되었고 시는 대상의 재현과 모방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기갈'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김춘수의 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적 언어는 '관념'과 의미 전달의 수단에 한정됐고, 시는 재현과 모방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면, 김춘수의 '시'가 대단한 의미를 갖거나 그렇지 않죠? 즉, 김춘수의 '시'는 관념에 얽매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직까지는 '무의미시론'과 완벽한 연결고리를 잡긴 힘듭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추상적인 관념을 전달하는 이미지·비유·상징과 같은 수사에 대한 집착은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다.

재진술입니다. 김춘수의 '시'가 갖는 특징을 설명하는 듯 하지만, 결국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시가 '관념'에 얽매어 있다, 시적 언어는 관념을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 말을 반복합니다.

내용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관념은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인 대상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구체적인 이미지나 비유적, 상징적 표현이 중요할 거예요. 즉, 김춘수의 시는 관념을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시적 언어'는 '관념'이라는 대상을 모방, 재현하는 데에 그칩니다.

하지만 김춘수는 말의 피안에 있는 관념이나 개인의 실존을 짓누르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공포를 느꼈다.

김춘수는 시에서 관념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관념이나 실존을 짓누르는 이데올로기가 있었고, 이에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일종의 문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1문단에서 제시된 1960년대의 시대 현실이겠죠? 그렇다면 김춘수의 '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관념을 강조했는데 관념을 억누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 공포에서 벗어나 자아를 보존하려는 충동이 그를 '생의 구원'으로서의 시 쓰기로 이끈 것이다.

억압적인 상황에서 자아를 보존하기 위해 김춘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생의 구원'으로서의 시 쓰기라고 해요.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맥락상 자아를 보존하는 것이니 생의//구원인데, 정확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핵심이 무엇인지 반드시 생각해야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김춘수는 언어와 이미지의 유희, 즉 기의(記意) 없는 기표(記標)의 실험을 시도하였다.

'생의 구원'으로서의 시 쓰기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게 언어와 이미지의 유희, '기의 없는 기표'라고 합니다. 언어와 이미지의 유희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이랑 이미지를 갖고 논다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봅시다.

기의에서 해방된 기표의 유희는 시와 체험, 시와 현실의 연속성을 끊는 것은 물론 역사 현실과 화해할 수 없는 자율적인 시를 만드는 원천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재진술 문장입니다. 기의에서 해방된 기표는, 기의 없는 기표와 같은 말일 거예요. 이는 시를 체험이나 현실 등으로부터 유리시킨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김춘수는 시를 체험이나 현실로부터 끊는 방식으로 시를 변화시켰습니다.

해설 Comment

조금 디테일하게 김춘수의 시 쓰기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해봅시다. 가볍게 읽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김춘수는 원래 시에서 관념을 모방, 재현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관념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라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와 같이 김춘수의 '시 쓰기 방식'이 변합니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1960년대의 시대 현실로 이해했죠? 즉, 현실의 이데올로기가 관념을 억압하기 때문에, 현실과의 연속성을 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의 구원'으로서의 시 쓰기라는 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과 관념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떨어지기 위해 현실과의 연속성을 끊어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비유와 상징은 물론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까지 시에서 배제하는 기법 및 형식 실험으로 이어졌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앞에서 어려운 말들로 범벅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장입니다. 동시에 '무의미시론'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읽어야 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비유, 상징, 이미지는 원래 김춘수가 관념이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시에서 배제하게 된대요. 그렇다면 김춘수의 시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시를 현실과 끊어버리고 이전 형식조차 없는 시를 만든 것이죠. 네, 무의미한 시가 되었습니다. 김춘수는 결국, 자기의 관념이나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뿐더러 현실과도 무관한 시를 쓰게 됩니다. 이게 곧 '생의 구원'을 위한 시 쓰기 방식이 되겠네요.

#3문단

구체적으로 그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하여 의미를 덧씌울 중심 대상을 붕괴시키고, 마침내 대상이 없는 이미지 그 자체가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무의미 상태에 도달하고자 했다. 물론 대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과정에는 창작자의 의식과 의도가 개입해야 한다. 이 점에서 무의미시는 인간의 무의식을 강조한 초현실주의와 차이가 있지만 자유연상 혹은 자동기술과 예술적 효과가 흡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김춘수는 언어 기호를 음소 단위로까지 분해하거나 시적 언어를 주문이나 염불 소리 같은 리듬 혹은 소리 이미지에 근접시키기도 하였다. 김춘수의 「처용단장」 제2부는 이런 시적 실험들의 진면목을 드러낸 작품이다.

앞에서 무의미시론을 떠올리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에겐 3문단이 있으니까요. 수사법이 시에서 배제되었다는 포인트만 쥐고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직접적으로 '무의미'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김춘수의 변화된 시 쓰기를, 무의미시론과 연결해주는 재진술 문단이기 때문에 이 문단을 읽으면서 김춘수의 '무의미시론'을 이해해주시면 돼요.

① 구체적으로 그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하여 의미를 덧씌울 중심 대상을 붕괴시키고, ② 마침내 대상이 없는 이미지 그 자체가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무의미 상태에 도달하고자 했다.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2문단에서 언급한 김춘수의 변화된 시 쓰기 방식을 요약함과 동시에 그것을 무의미시론과 연결해주는 문장입니다. ①번이 요약, ②번이 무의미시론과 연결해주는 부분입니다. 끊어서 다시 설명할게요.

① 구체적으로 그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하여 의미를 덧씌울 중심 대상을 붕괴시키고,

2문단에서 김춘수는, 시에서 대상을 떠올리게 해주는 이미지를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김춘수가 어떻게 이미지를 배제했는지 알려주는 문장이예요. 대상을 떠올리게 해주는 이미지는, 계속 새로운 이미지에 덧씌워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눈 - 차가움 - 얼음 - 아이스크림 - 시원한 음식 - 냉면 - 만두

이렇게 되면 '눈'이라는 중심 대상과 관련된 이미지를 계속 덧씌우다가 '만두'라는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눈'과 '만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심 대상을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즉 시에서 특정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배제하게 됩니다.

② 마침내 대상이 없는 이미지 그 자체가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무의미 상태에 도달하고자 했다.

네, 그렇다면 '관념'을 전달하는 이미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만두'라는 이미지에서는 '눈'이라는 중심 대상이 붕괴되었어요. 이와 같이 김춘수는 '무의미/시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의미시론을 떠올려주면 충분합니다.

물론 대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과정에는 창작자의 의식과 의도가 개입해야 한다.

당연하게 납득해주면 됩니다. 아무리 시에서 이미지가 배제되고 의미가 사라지게 되더라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창작자의 의식과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눈에서 만두까지 다다를 때에도 이 연상을 떠올리고 이렇게 시를 쓰는 창작자의 의식과 의도는 당연히 개입할 테니까요.

이 점에서 무의미시는 인간의 무의식을 강조한 초현실주의와 차이가 있지만 자유연상 혹은 자동기술과 예술적 효과가 흡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장입니다. 은근슬쩍 비교지점을 언급하기도 하고 ‘무의미시’의 숨겨진 정의, ‘자유연상 혹은 자동기술과 예술적 효과가 흡사한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무의미/시는 앞에서 봤듯 중심 대상이 붕괴된, 의미가 없는 시입니다. 이는 ‘무의식’을 강조한 ‘초현실주의’와 차이가 있대요. 왜 차이가 있는진 다들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 김춘수의 무의미시(이미지 붕괴) 또한 창작자의 의식이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의식 여부’에 따라 초현실주의와 무의미시가 대조됩니다.

하지만 무의미시 또한, ‘자유연상 혹은 자동기술과 예술적 효과가 흡사한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곧 ‘이미지의 붕괴’, ‘무의미 상태’를 가리킬 거예요. 문장이 길지만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김춘수는 언어 기호를 음소 단위로까지 분해하거나 시적 언어를 주문이나 염불 소리 같은 리듬 혹은 소리 이미지에 근접시키기도 하였다. 김춘수의 「처용단장」 제2부는 이런 시적 실험들의 진면목을 드러낸 작품이다.

역시나 같은 포인트를 반복합니다. 직관적으로 이 문장을 읽고,

“언어가 소리 이미지라고? 무의미하네!”

이렇게 이해했다면 가장 좋습니다.

이해가 잘 안된다면 꼼꼼히 따져봅시다. ‘언어 기호’, ‘시적 언어’를 아예 리듬이나 소리 이미지로 근접시킨다고 해요. 원래 김춘수에게 ‘시적 언어’는 관념과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적 언어가 ‘소리 이미지’로 변했다고 해요. 관념이나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사라진 것이죠.

마지막에는 예시도 간단히 언급되고 있네요. 가볍게 읽고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기> 문제에서 등장하는데 이때도 무의미하다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4문단

김춘수에게 시 쓰기란 현실로 인해 빚어진 내면의 고뇌와 개인적 실존의 위기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생을 구원하는 현실 도피의 길이었다. 이와 달리 김수영에게 시 쓰기란 자유를 억압하는 군사 정권과 대결하고 정치적 자유의 이행을 촉구하며 공동체의 운명을 노래하는 것이었다. 4·19 직후의 풍자시는 참여시 실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참여시론의 핵심은 진정한 자유의 이행을 위해 ㉠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란 모순어법으로 집약된다. 이는 내용과 형식은 별개가 아니며 시인의 사상과 감성을 생활(현실) 속에서 언어로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시의 형식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 까닭에 시의 현대성은 실험적 기법의 우열보다는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시인의 양심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는 김춘수에 대한 이야기에서 김수영으로 서술의 초점이 넘어갑니다. ‘참여시’는 애초부터 문학 개념어로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해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참여시와 무의미시의 비교지점을 잡아가면서 읽어주면 충분합니다.

김춘수에게 시 쓰기란 현실로 인해 빚어진 내면의 고뇌와 개인적 실존의 위기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생을 구원하는 현실 도피의 길이었다.

김춘수의 시 쓰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요약해주는 문장입니다. 관념이나 개인의 실존을 억누르는 이데올로기가 변화의 원인이었죠. 그리고 이에 대해 도피하기 위해 대상을 드러내는 이미지를 배제했습니다. 이게 곧 무의미시론의 핵심이기도 했죠. 의미를 삭제하는 것! 문장 자체는 간단히 읽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춘수의 무의미시론의 핵심이 뭔지 기억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와 달리 김수영에게 시 쓰기란 자유를 억압하는 군사 정권과 대결하고 정치적 자유의 이행을 촉구하며 공동체의 운명을 노래하는 것이었다.

서술의 초점을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이제 김춘수에서 김수영의 시 쓰기로 넘어갑니다. 화제 기억나시죠? 두 사람의 시론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비교지점 잡아줄 준비합니다. 내용 자체는 역시나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참여시’ 그 자체를 썼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참여시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관념을 억압하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무의미를 추구한 김춘수와 대비된다는 점도 파악해줍니다. 김수영은 ‘현실 저항’, 김춘수는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에 대한 태도를 비교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4·19 직후의 풍자시는 참여시 실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풍자시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참여시와 결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같은 군집으로 묶고 넘어갑니다.

참여시론의 핵심은 진정한 자유의 이행을 위해 ㉠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란 모순어법으로 집약된다.

비유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재진술처럼 핵심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시의 핵심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이게 ‘온몸을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는 문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현실에 맞선다는 점에서 피하지 않는다는 의미 정도로는 잡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핵심을 중심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내용과 형식은 별개가 아니며 시인의 사상과 감성을 생활(현실) 속에서 언어로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시의 형식이 된다는 의미이다.

바로 쉬운 표현으로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은 별개가 아니다’ 이게 핵심이네요. 시인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곧 형식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내용 = 형식이라는 뜻이군요. 현실에 대한 시인의 생각(내용)을 강조하는 참여시론과 같은 맥락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런 까닭에 시의 현대성은 실험적 기법의 우열보다는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시인의 양심에서 찾아야 한다.

김수영은 ‘시인의 양심’을 강조합니다. ‘참여시론’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사실상 재진술입니다. 결국은 시인이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니깐요!

여기까지 읽으면 현실에서 도피하는 김춘수의 무의미시론과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두 사람, 두 시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5문단

물론 김수영도 김춘수가 추구한 무의미시의 의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 역시 '무의미'란 의미 너머를 지향하는 욕망,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려는 것이고 시와 세계의 화해 불가능성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김춘수가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너무 협소한 것이라고 여겼다. 이런 점에서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 무의미의 추구도 되겠지만, '의미'를 꺼안고 들어가서 그 '의미'를 구체함으로써 무의미에 도달하는 길"도 있다는 김수영의 말은 주목된다. 그는 김춘수처럼 시어의 무의미성에 대한 추구로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는 것도 현대시가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실험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시어의 의미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마침내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시인의 태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수영은 김춘수의 궁극적인 꿈이기도 했던 시와 예술의 본질 혹은 존재 방식으로서의 무의미성까지 도달하기 위해 오히려 시어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시와 현실의 접촉을 늘려 세계 변혁을 꾀하는 현실 참여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실제로 그의 참여시는 시와 산문의 언어적 경계를 허물어 산문적 의미까지 시에 담아내려 했다. 이를 통해 그는 일상어·시사어·관념어, 심지어 비속어와 욕설까지 폭넓게 시어로 활용하여 세계의 의미를 개진하고 당대 현실을 비판할 수 있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김춘수와 김수영의 비교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꼭 파악해야 합니다. '시의 무의미성'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김춘수는 시의 의미를 없애고 김수영은 시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차이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지점은 꼭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화제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김수영도 김춘수가 추구한 무의미시의 의의를 일부 인정했다.

계속해서 김춘수와 김수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흐름을 잘 잡아 줍시다. 또, 여기서 무의미시의 의의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니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등장하겠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 역시 '무의미'란 의미 너머를 지향하는 욕망,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려는 것이고 시와 세계의 화해 불가능성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수영이 생각한 김춘수의 '무의미'에 대한 정의가 제시됩니다. 그게 바로 '시와 세계의 화해 불가능성'입니다. 이걸 읽는 순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춘수는, 억압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와 현실의 연속성을 끊었습니다. 그 방법이 이미지의 중심 대상을 없애는 것이었고요. 이는 무의미시론의 핵심이었죠. 이 포인트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시와 세계의 화해 불가능성'입니다. 공통점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해설 Comment

'시와 세계의 화해 불가능성'을 김수영의 특징과 엮어서 납득할 수 있습니다. 김수영은 현실에 저항하는 인물입니다. 즉, 자신이 처한 세계에 저항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이 처한, 불만이 있는 세계와는 절대 '화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와 세계의 화해 불가능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김춘수가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너무 협소한 것이라고 여겼다.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춘수는 '시의 무의미성'을 위해, 말 그대로 시의 의미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미지의 중심 대상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김수영은 이게 협소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김수영은, 어떻게 시의 무의미성을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참여시론과 엮어가면서 김수영의 생각을 이해해야겠군요.

이런 점에서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 무의미의 추구도 되겠지만, '의미'를 꺼안고 들어가서 그 '의미'를 구체함으로써 무의미에 도달하는 길"도 있다는 김수영의 말은 주목된다.

김수영의 말을 인용하는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점을 제시하는 문장이라는 점만 잘 파악해도 충분합니다. 의미를 포기하는 것은 김춘수가 택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는 것이, '의미'를 통해 무의미로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김수영의 입장이네요. 의미로 의미를 없앤다는 게 핵심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딱 두 가지입니다.

- ① 김춘수와 김수영의 차이를 제시한다.
- ② (김춘수와 차이를 보이는) 김수영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해설 Comment

‘의미’를 안고 들어가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여 무의미에 도달한다는 것 또한 김수영의 핵심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저항한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의미를 꺼안고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을 직면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구제하는 것은 시인이 지향하는 이상(진정한 자유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시인이 불만이 있는 현실 세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의미이죠. 지문을 읽을 땐 하기 어려운 사고 과정이 맞습니다.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김춘수처럼 시어의 무의미성에 대한 추구로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는 것도 현대시가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실험이라고 보았다.

가볍게 읽으면 됩니다. 김춘수처럼 시어의 무의미성을 추구하는 것도 인정한대요. 하지만 김수영은 이런 방법이 너무 협소하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는 시어의 의미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마침내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시인의 태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인용구(김수영의 말)에 대한 재진술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보다 쉬운 말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의미성을 통해 무의미성에 도달하는 것’, 이게 김수영의 생각입니다. 대체 무슨 말 일까요? 이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미를 통한 무의미의 추구가 무엇인지 계속 궁금해하셔야 합니다.

김수영은 김춘수의 궁극적인 꿈이기도 했던 시와 예술의 본질 혹은 존재 방식으로서의 무의미성까지 도달하기 위해 오히려 시어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시와 현실의 접촉을 늘려 세계 변혁을 꾀하는 현실 참여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네, 우리가 궁금해했던 포인트를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의미를 통해 무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시어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시와 현실의 접촉을 늘려서’ 시어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여기서 김춘수와 그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다시 드러납니다.

김춘수는 시의 무의미성을, 현실과의 연속성을 끊는 방식으로 추구합니다. 하지만 김수영은 반대입니다. 현실과의 접촉을 늘리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 차이점을 눈치채야 합니다.

실제로 그의 참여시는 시와 산문의 언어적 경계를 허물어 산문적 의미까지 시에 담아내려 했다. 이를 통해 그는 일상어·지사어·관념어, 심지어 비속어와 욕설까지 폭넓게 시어로 활용하여 세계의 의미를 개진하고 당대 현실을 비판할 수 있었다.

시어의 범위를 넓히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시적 언어를 ‘산문적 언어’까지 넓히고, 일상어, 지시어, 관념어, 비속어, 욕설까지 시어로 사용합니다.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될수록 시와 현실의 접촉은 늘어날 겁니다. 다양한 말들이 반영하는 현실을, 시에 사용하니까요.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앞에서 떠올린 물음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수영은 ‘시어’라는 것을 한정하여 따로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시어’라는 것의 경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언어까지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시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다양한 언어를 모두 ‘시적 언어’로 사용함으로써 ‘시어’라는 의미를 없앤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수영이 추구한 ‘시의 무의미성’입니다.

말 그대로 시의 의미를 없애는 것으로 ‘시의 무의미성’을 추구한 김춘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무의미성의 달성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비교지점 깔끔하게 잡고 넘어갑시다.

#6문단

사실 김춘수의 시적 인식은 김수영의 그것에 대한 대타 의식의 소산이다. 김춘수는 김수영을 시와 생활을 구별하지 못한 '로맨티스트'였지만 자신의 죽음까지도 시 쓰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훌륭한 시인이라고 평가했다. 김춘수는 세계에 대한 허무감에서 끝내 벗어날 수 없었던 자신과 달리 김수영이 현대 사회의 비극적 운명에 '온몸'으로 맞서는 시인의 윤리를 실천한 점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김수영의 시와 시론에서 시와 예술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발견했던 것이다.

흔한 마무리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장의 '공유된 인식'이 무엇인지만 잘 파악하면 됩니다. 둘 다 '시의 무의미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사실 김춘수의 시적 인식은 김수영의 그것에 대한 대타 의식의 소산이다. 김춘수는 김수영을 시와 생활을 구별하지 못한 '로맨티스트'였지만 자신의 죽음까지도 시 쓰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훌륭한 시인이라고 평가했다.

네, 두 사람의 시론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수영에 대한 김춘수의 평가가 드러나는데, 사실상 김수영의 입장(참여시론)을 반복하고 있네요. 김수영은 참여시론을 제시하고 시와 현실의 접촉을 확대했습니다.

김춘수는 세계에 대한 허무감에서 끝내 벗어날 수 없었던 자신과 달리 김수영이 현대 사회의 비극적 운명에 '온몸'으로 맞서는 시인의 윤리를 실천한 점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김수영의 시와 시론에서 시와 예술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발견했던 것이다.

네, 김수영과 김춘수는 '현실'에 맞서느냐, '현실'을 외면하느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시의 무의미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같죠. 그게 공유된 인식입니다.(실제로는 이외에도 더욱 많지만요)

#지문 총평

지문이 길고 표현이나 어휘가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은 여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진술이나 예시가 적극적으로 활용됐기 때문이에요.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김수영이 시의 무의미성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김춘수의 방식과 잘 구분하면서 읽는 것,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이 쏟아질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을 잊지 않고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지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글을 읽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막 쏟아지면 재진술이나 예시가 나와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항상 내가 이해해야 할 내용들을 기억하고, 해당 내용을 뒤에서 확인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지문은 위와 같은 태도를 연습하기 좋은 지문입니다. 예시나 재진술을 개념과 연결하는 태도를 위주로 복습해보시길 추천합니다.

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무의미시론(김춘수), ㉡ 참여시론(김수영)

- 사실상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김춘수의 무의미시론과 김수영의 참여시론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 화제이자 지문의 전부였어요. 여기서 관련되어 나온 핵심적인 내용이 시의 무의미성이었죠. 이런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선지 판단해봅시다.

㉠ ㉠은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세계에 대한 허무 의식을 극복했다.

→ 김춘수는 세계에 대한 허무 의식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과의 연속성을 끊어버리고 현실을 외면한 것이 바로 무의미시론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6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 선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기도 했죠.

#선지 포인트 : 납득해야 할 세부 정보, 재진술 이해하기

② ㉠은 시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나 의미가 아니라 형식이나 기법이라고 여겼다.

→ 네, 무의미시론에서는 대상과 관련된 이미지를 제거하면서 말 그대로 의미가 없는 시어를 강조하는 형식을 추구했습니다.

#선지 포인트 : 무의미시론의 정의

③ ㉡은 해체시 실험에 치중하면 현실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다.

→ ‘해체시’는 김춘수의 무의미시론에서 추구한 시입니다. 그리고 참여시론을 제시한 김수영은, 진정한 자유의 이행을 위해 현실과 직면하는 것을 강조했죠. 이게 참여시 그 자체이니까요. 하지만 김춘수의 해체시는 현실을 외면합니다. 따라서 현실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겠군요.

#선지 포인트 : 두 시론의 비교지점

④ ㉢은 시어의 범위와 시의 내용을 확장하여 시의 현실성을 강화했다.

→ 참여시론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무의미시론과의 비교지점이기도 하죠. 김수영은 시어의 범위를 일상어, 비속어 등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곧 시와 현실과의 접촉 확대이기도 합니다.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의 무의미성을 추구하기도 했죠. 참여시론의 핵심 그 자체를 묻는 선지입니다.

#선지 포인트 : 참여시론의 속성(핵심), 두 시론의 비교지점

⑤ ㉣과 ㉤은 모더니스트였던 시인의 예술관과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 준다.

→ 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김춘수와 김수영이 어떤 시를 추구했는지 차이가 있었고 현실을 외면하느냐, 현실에 맞서느냐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비교지점이면서 사실상 화제이기도 하죠.

#선지 포인트 : 화제, 두 시론의 비교지점

2. 윗글의 김수영에 대한 서술을 근거로 ㉠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

- 김수영의 참여시론의 핵심입니다. 시의 내용이 곧 형식이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시의 내용이 현실에 참여하는 시인의 생각이죠.

① ㉠은 동일한 존재가 행위의 수단이자 행위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 이건 문장 그 자체로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주체가 곧 밀리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모순 어법입니다.

② ㉠은 현실 도피 대신에 현실 참여를 시인의 윤리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 네, 참여시론 그 자체입니다. 현실에 대한 시인의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고 했어요.

③ ㉠은 정치 현실로 인해 억압된 자유를 되찾으려 했던 시인의 고뇌를 담고 있다.

→ ②번 선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김수영은 군사 정권의 억압 속에서 정치적 자유의 이행을 촉구했어요. 이런 자신(시인)의 생각을 시에 담아냈죠.

④ ㉠의 행위 자체가 형식인 시에서 내용은 시인이 느끼는 사상과 감성에 관련된다.

→ 마찬가지로 ②번 선지랑 같은 근거로 지을 수 있습니다. 시에 시인의 생각(사상과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김수영의 참여시론이었죠.

⑤ ㉠은 실험적 기법이 시의 현대성을 성취하는 근본 요건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 실험적 기법은 일단 김춘수의 무의미시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배제하는 기법 및 형식 실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김수영의 핵심은 현실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시의 정의이기도 했죠. 여러모로 틀린 선지입니다.

3. 김춘수와 김수영의 <공유된 인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 ①

- 둘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문을 읽을 때 둘 다 시의 무의미성을 추구했다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이 정도는 기억하면서 읽어봅시다.

① 공동체적인 삶의 지향을 통한 자아의 보존

→ 바로 정답이네요. 김춘수는 자아의 보존을 위해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한 것은 김수영이었죠.

② 개인의 실존을 억압하는 현실의 부조리성

→ 네, 둘다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 인식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③ 의미가 제거된 시어의 활용 가능성

→ 지문 해설에서 언급한 포인트입니다. 둘 다 시어의 의미를 제거하고 시의 무의미성을 추구했어요. 다만 그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김춘수는 진짜 시어의 의미 자체를 없앴고, 김수영은 시어의 의미를 확대했습니다.

④ 시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무의미성

→ ③번 선지랑 같은 맥락의 선지입니다. 둘 다 시의 무의미성을 인정했습니다. 역시나 그 방식이 달랐죠.

⑤ 시와 세계의 화해 불가능성

→ 둘의 공통점으로 제시된 부분입니다. 김수영도 김춘수가 추구한 무의미시의 의의를 인정합니다. 이때 '무의미'는 '시와 세계의 화해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죠. 김춘수는 시와 현실의 연속성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김수영은 현실에 맞서며 변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방식으로 '화해 불가능성'을 드러냅니다.

4. 윗글에 비추어 <보기>의 시 쓰기 방법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 김춘수와 김수영 중 어느 입장에 해당하는 시 쓰기 방법인지 판단하면서 <보기>를 읽어야겠습니다.

— <보 기> —

불러다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는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의 누이는 어디 있는가,
 말더듬이 일자무식 사바다는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의 누이는 어디 있는가,
 불러다오
 멕시코 옥수수는 어디 있는가
 - 김춘수, 「처용단장」 제2부에서

- 네, 아예 김춘수의 시를 갖다 두었네요. 그런데 시를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열된 시어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무의미시 그 자체입니다. 대상의 이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시된 작품이 무의미시라는 점만 파악하시면 충분합니다.

① 김춘수는 <보기>에 외래어와 관념어를 사용하면 시적언어를 확장하고 시와 산문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 이건 김춘수가 아니라 김수영의 입장입니다. 시어의 의미를 일상어부터 욕설까지 확장하고 시와 산문의 경계를 허무는 것!

② 김춘수는 <보기>의 염불 소리 같은 강렬한 청각 영상과 리듬감은 현실이 초래했던 고뇌와 공포를 상징한다고 여겼을 것이다.

→ 김춘수는 무의미시를 쓴 사람입니다. 비유나 상징을 배제하고 말 그대로 '의미가 없는 시'를 쓰는걸요. <보기>를 읽으면서도 시의 내용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파악했어야 합니다.

③ 김수영은 <보기>가 '사바다'를 비하하여 '말더듬이 일자무식'에 비유함으로써 당대 현실을 풍자한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 조금 까다로운 선지입니다. 김수영이 참여시나 풍자시를 추구하긴 했지만 <보기>의 시를 보고 풍자를 떠올리진 않았을 겁니다. 김수영도 김춘수의 무의미시를 일부 인정하고 김춘수의 무의미시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너무 협소하다고 비판을 하면 하겠죠.

④ 김수영은 <보기>의 무의미성이 시어의 의미를 포기한 결과이므로 진정한 자유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 정답입니다. 김수영은 김춘수가 추구한 시의 무의미성을 비판합니다. 그는 김춘수의 방법이 너무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시어의 의미성을 통해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김수영은 이런 방식으로 현실 참여를 추구했습니다. 그게 참여시론이죠.

하지만 김춘수의 방식으로는 현실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춘수는 현실을 외면하고, 이에 따라 '의미 없는 시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김춘수의 방식으로는 진정한 자유 이행이 어렵다고 생각하겠군요.

⑤ 김춘수와 김수영은 모두 <보기>가 의미를 덧씌울 대상을 붕괴시킴으로써 새로운 내용적 요소를 담을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 김춘수의 무의미시를 잘 이해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춘수는 시어의 이미지 등을 배제하고 형식에 몰두합니다. <보기>의 시도 마찬가지이죠. 즉, 내용적 요소를 담을 여지는 없겠군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 LEET [1~3]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하였다. 바다에 빠진 선원 A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널판을 발견하였다. 널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선원 A가 널판으로 헤엄쳐 갈 때, 마침 미처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널판 쪽으로 헤엄쳐 왔다. 선원 A와 선원 B는 동시에 그 널판을 붙잡게 되었다. 두 사람이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널판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선원 A는 둘 다 빠져 죽을까 걱정하여 선원 B를 널판에서 밀어내었다. 선원 B는 결국 물에 빠져 죽었고 선원 A는 구조되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만든 가상의 사건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도 따져 볼 만하다.

범죄는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하며, (3)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중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킨 일을 가지고 사회적인 해악을 일으킨 위법한 행위라 하지 않는 것이다. 긴급피난은 꼭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일어난 위난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르다.

앞의 사례에서 선원 A와 선원 B가 동시에 널판을 잡은 행위는 저마다의 생명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

이었다. 이 상황은 선원 A의 입장에서 급박한 위난이었고, 선원 A의 이어진 행위는 위난을 피하는 데 절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선원 A의 행위에 대해 ㉠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나, ㉡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우선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할 때 위난에 빠진 선원 B의 행위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훨씬 커야 하는데 이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선원 A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는 유책한 행위, 곧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책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위법성은 개인의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이다. 형법상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기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는 윤리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인 비난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재구성한 사례에서 선원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승고한 선행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윤리적인 비판은 몰라도 법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사례에 관한 윗글의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선원 A나 선원 B의 행위는 모두 위난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선원 B가 만약 선원 A를 밀어 빠져 죽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범죄가 된다.
- ③ 선원 A와 선원 B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선원 B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 ⑤ 선원 A가 선원 B를 살리는 선택을 하였다더라도 그것을 윤리적으로 드높은 덕행이라 할 수 없다.

2. ㉠,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은 선원 A의 행위가 현재 자기에게 닥친 침해를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③ ㉡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은 선원 A의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그의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따져야 결정될 것이라고 볼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선원 A의 행위가 현재 직면한 위난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

3. 윗글에 따를 때 A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원 A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적법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선원 A는 책임이 있다.
- ③ 선원 A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남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 ④ 유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선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따지지 않고 책임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 ⑤ 선원 A의 행위가 위법한지는 따져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적 판단인 데 반하여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하였다. 바다에 빠진 선원 A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널판을 발견하였다. 널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선원 A가 널판으로 헤엄쳐 갈 때, 마침 미처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널판 쪽으로 헤엄쳐 왔다. 선원 A와 선원 B는 동시에 그 널판을 붙잡게 되었다. 두 사람이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널판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선원 A는 둘 다 빠져 죽을까 걱정하여 선원 B를 널판에서 밀어내었다. 선원 B는 결국 물에 빠져 죽었고 선원 A는 구조되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만든 가상의 사건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도 따져 볼 만하다.

특정 상황을 설명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네요. 화제와 직결되는 상황일 겁니다. 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렵지 않게 화제를 잡을 수 있어요. '카르네아데스의 널' 사례에 대한 형법상 처벌 가능 여부를 앞으로 따져볼 겁니다. 다음 내용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뒤에서 형법 관련 내용이 나오면 '카르네아데스의 널'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줍니다.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하였다. 바다에 빠진 선원 A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널판을 발견하였다.

첫 문장부터 상황을 제시하고 있네요. 화제와 연결되는 상황일 거라 생각하며 일단은 상황을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배가 난파하여 여러 사람이 바다에 빠졌고, 선원 A는 널판을 발견했네요. 이걸 잡으면 살 수 있겠습니다.

널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선원 A는 널판으로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 없네요. 혼자만 살 수 있습니다.

선원 A가 널판으로 헤엄쳐 갈 때, 마침 미처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널판 쪽으로 헤엄쳐 왔다.

앗, 그런데 선원 B도 선원 A가 향하는 널판 쪽으로 헤엄쳐 갑니다. 널판은 두 명을 지탱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선원 A와 선원 B는 동시에 그 널판을 붙잡게 되었다.

널판에 의지할 수 있는 건 한 명인데 동시에 두 명이 잡았네요. 누구 한 명이 양보해야 하는 이유, 명분 같은 게 없겠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널판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선원 A는 둘 다 빠져 죽을까 걱정하여 선원 B를 널판에서 밀어내었다.

선원 A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선원 B를 널판에서 밀어냈어요. 애초에 널판으로는 한 명만 살 수 있기도 하고, 둘 다 죽는 것보다는 나아보이기는 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만든 가상의 사건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다.

앞에서 본 사건이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네요.

이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도 따져 볼 만하다.

화제를 제시하고 있네요. 앞으로의 내용을 예고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본 사례가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 따져 보는 것이 화제가 되겠네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될 거고,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해야겠습니다.

해설 Comment

윤리적인 문제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초점이 형법 상 처벌 가능 여부에 있는 것이지, 윤리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뒷 내용을 읽어주시되, 윤리적인 문제가 뒤에서 나온다면 연결해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21.06 ICT 지문에서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1.06 ICT 지문 1문단 마지막>

이 문장을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 초점이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바로 다음 문장부터 ‘디지털 세’를 이야기하면서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지문이 흘러가다가 뒷부분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문제를 다루었어요. 이때 1문단으로 돌아왔다면 더 편하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평가원에서 이렇게 세밀한 포인트 혹은 정확한 이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한 번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문단

범죄는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하며, (3)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중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

화제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제시되네요. 범죄의 성립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파악하고 앞의 상황을 떠올리며 연결하시는 태도가 중요했어요.

범죄는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하며, (3)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네요.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범죄라고 정의됩니다. 앞으로 각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주겠죠? 뒤에서 언급되면 확인하고 ‘카르네아데스의 널’ 상황과 함께 연결하여 생각해봅시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재진술 문장입니다. 위에서 범죄를 (1), (2), (3)으로 연결하여 정의했었죠. 구성요건에 해당하면서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가 범죄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요건을 전부 갖춘 것이 아니니 범죄가 아니에요.

이 중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범죄의 성립요건 중 첫 번째, 구성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형법에 위법한 행위라고 적혀있는 것을 말하는 거네요!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구성요건이다.

예시를 통해 재진술해주는 문장입니다. 앞에서 구성요건은 형법에 적혀있는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였죠? 이것이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행위로 구체화되어 설명됐네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의 조건을 이해하면 앞의 ‘카르네아데스의 널’ 상황과 연결하며 생각해주시기로 했었죠? 앞의 예시에서는 선원 A가 선원 B를 밀어서 물에 빠트려 죽였어요. 이는 충분히 형법 제 250조 제1항에 의해 구성요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제 선원 A의 행위가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지만 판단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하네요. 그러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범죄의 성립요건 중 ‘(2) 위법하며’도 일반적으로 충족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입니다.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미 많이 보셨죠? 신경써서 읽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하지는 않은 상황이 존재할 수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3문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킨 일을 가지고 사회적인 해악을 일으킨 위법한 행위라 하지 않는 것이다. 긴급피난은 꼭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일어난 위난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나 제시되었습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르네아데스의 널’ 상황이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겠죠? 화제와 계속 연결하며 읽어주세요야 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앞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외적인 상황이 등장하네요. 어떤 경우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서 위법하지는 않은지 뒤에서 설명해줄 테니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나 봐요! 정당/방위는 평소에도 들었던 단어죠? 정당하게 방어를 위한 행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피난도 어렵지 않네요. 말 그대로 긴급한 피난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방위를 정의해주는 문장입니다. 다른 이의 위법한 행위로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행위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당방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카르네아데스의 널' 상황 속 선원 A는 정당방위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여요. 선원 A가 '살기 위해서' 선원 B를 바다에 빠트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원 B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선원 B는 선원 A에게 어떠한 행위도 가하지 않았습니니다. 선원 A는 그저 이려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서 자신이라도 살기 위해 선원 B를 바다로 민 거예요.

방위 :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킴.

여기에는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여기에서 '불법'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즉,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비유적인 재진술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칼을 쥐고 우리 집에 침입했다면 때리거나 제압해서라도 나의 목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강도를 때리기는 했으니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위법하다고 하진 않죠? 이게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는 긴급피난을 정의해주고 있네요. 정당방위와 비슷해 보이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인 점을 공통점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차이점은 자기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행위를 막기 위한 행위였고, 긴급피난은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네요. 여기까지 보면 선원 A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긴급하고 곤란한 상황

이었고, 자신의 권리(생명)를 지키기 위해 위난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니까요! 다음 문장에서 긴급피난에 대하여 설명을 더 해주고 있으니 정말 선원 A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위난 : 긴급하고 곤란한 경우

생명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킨 일을 가지고 사회적인 해악을 일으킨 위법한 행위라 하지 않는 것이다.

재진술 문장입니다. 앞의 내용과 대응해서 이해해주시면 되겠네요. 앞 문장에서 말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가 여기에서는 '생명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킨 일'인 거죠? 이 정도만 파악해주셔어도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해설 Comment

혹시나, 앞에서 선원 A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셨더라도 이 문장에서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긴급피난은 생명과 같은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이 문장을 보면, 생명 대신 희생시키는 법익은 '재산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생명보다 작은 법익이어야 해요. 문장 구조상, 대체할 수 있는 법익이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선원 A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원 B의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따라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말이 생명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것을 담보하지는 않으니까요! 사실 여기서 잡고 가기에 너무 깊은 추론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보셨으면 해서 남겼습니다. 너무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해주시니까요.

긴급피난은 꼭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일어난 위난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르다.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위에서 이미 추론한 내용이죠? 사실상 재진술 문장입니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일어난 위난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긴급피난은 모든 위난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4문단

앞의 사례에서 선원 A와 선원 B가 동시에 널판을 잡은 행위는 저마다의 생명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 상황은 선원 A의 입장에서 급박한 위난이었고, 선원 A의 이어진 행위는 위난을 피하는 데 절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선원 A의 행위에 대해 ㉠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나, ㉡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카르네아데스의 널’ 상황 속 선원 A의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화제와 연결되네요. 어렵지 않고 이미 파악한 내용이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선원 A와 선원 B가 동시에 널판을 잡은 행위는 저마다의 생명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사례의 상황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상황은 선원 A의 입장에서 급박한 위난이었고, 선원 A의 이어진 행위는 위난을 피하는 데 절실한 것이었다.

선원 A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급박한 위난이었고, 선원 A의 행위는 위난을 피하는 데 절실했다고 하니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걸까요?

이러한 선원 A의 행위에 대해 ㉠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나, ㉡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이미 앞에서 파악한 내용이죠? 선원 A의 행위는 선원 B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산상 피해를 줄 때나 긴급피난이 성립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원 A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켰으니 긴급피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네. 선원 A의 행위는 정당방위도, 긴급피난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선원 A의 행위는 범죄의 성립요건 세 가지 중 두 가지에 해당하네요. 구성요건에도 해당하고 위법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유책한 행위인지를 따져 보겠죠?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놓치지 않고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5문단

우선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할 때 위난에 빠진 선원 B의 행위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훨씬 커야 하는데 이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선원 A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는 유책한 행위, 곧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책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범죄의 성립요건 중 마지막 요건인 '유책한 행위'를 앞의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선원 A의 행위가 유책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우선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할 때 위난에 빠진 선원 B의 행위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훨씬 커야 하는데 이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의 사례 속 선원 A의 행위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확인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선원 A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선원 A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야 해요! 범죄의 성립요건은 세 가지였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있는지, 유책한 행위인지를 모두 따져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범죄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니다. 선원 A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였죠? 이제 유책한 행위이지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책한//행위이니 책임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쉽게 파악하셨을 거예요. 따라서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쉽게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범죄는 유책한 행위, 곧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재진술 문장입니다.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행위여야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선원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직 판단이 어려워요. 뒤에서 유책한 행위의 경우를 설명해주면 연결하여 판단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책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 재진술 문장이네요. 책임이 없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니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아직도 유책한 행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지 않았으니 뒤에서 설명해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술의 초점을 유책한 행위에 두고 뒤로 넘어가셔야 해요. 유책한 행위를 파악하고 앞의 예시에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6문단

위법성은 개인의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이다. 형법상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기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는 윤리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인 비난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재구성한 사례에서 선원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승고한 선행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윤리적인 비판은 몰라도 법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유책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었죠. 이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방식이 독특해요. 명시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았는데 위법성과의 비교를 통해 유책한 행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여 유책한 행위를 이해하고 '카르네아데스의 널'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위법성은 개인의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서술의 초점을 유책한 행위에 두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이상함을 느끼셨어야 해요. 혹은 유책한 행위와 관련이 있나? 생각하면서 읽으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더 매끄러우셨을 거예요.

해설 Comment

이렇게 서술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읽으셨다면 아래 해설처럼 생각하면서 읽으셨을 겁니다.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네? 그러면 유책한 행위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나? 그리고 위법성은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판단한다는데, 그러면 유책한 행위는 법질서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건가?”

서술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읽었다면, 이런 식으로 위법성과 유책한 행위를 비교하면서 유책한 행위의 판단 기준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추론하며 읽는 태도가 잡히실 겁니다.

형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이다.

책임의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책한 행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네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 여부가 핵심이네요.

형법상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형법상 책임(유책한 행위)의 정의를 재진술해주고 있습니다. 법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네요. 이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화제와 직결되네요. 그러면 선원 A의 행위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일까요? 아직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 어렵네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기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법적 비난 가능성을 재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었다면 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는 거네요! 여기서 ‘다른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아니겠죠? 맥락상, 위법한 행위 대신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해설 Comment

문제를 풀 때는 이만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다른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 경우도 법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지른 위법한 행위보다 ‘낮은 수준의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면 이 행위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저지른 행위가 정말 ‘어쩔 수 없는 행위였는가’를 따지는 거니까요. 더 낮은 수준의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행위’가 아닐 겁니다. 추론하고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첨언합니다.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는 윤리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인 비난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진술 문장입니다. 앞에서 파악한 내용이네요. 당연히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법적인 비난을 받아야죠. 즉, 유책한 행위입니다. 반대로 위법한 행위 밖에 할 수 없었다면 유책한 행위가 아니네요.

사소한 포인트인데, ‘윤리적인 비판뿐만 아니라’라는 서술을 보면 유책한 행위에 대한 윤리적인 비판은 당연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법적인 비난까지 가해지는 거니까요.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재구성한 사례에서 선원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승고한 선행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윤리적인 비판은 몰라도 법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시적으로 ‘카르네아데스의 널’ 상황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선원 A가 만약 자신을 희생하여 선원 B를 살렸다면 좋은 행위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원 A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 선원 A의 행위는 유책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원 A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유책한 행위에 충족되지 않으니까요!

해설 Comment

여기에서도 윤리적인 비판은 고려하지 않네요. 법적인 비난과 윤리적인 비판을 계속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1문단에서 윤리적인 비판을 받을 만 한지도 논란이 된다고 한 서술이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따라서 윤리적인 비판과 법적인 비난은 따로 생각해야겠습니다.

#지문 총평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구조의 지문이었습니다. 1문단에서 상황,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서술해주는 구조였어요. 따라서 첫 문단에서 '상황에 대한 형법상 처벌 가능 여부'를 화제로 잡고 글을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범죄의 성립요건에 집중하여 각 요건들을 설명해줄 때마다 예시와 연결하여 읽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문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을 따질 때, '구성요건 → 위법성 → 유책한 행위' 순서로 고려한다는 것을 파악하셨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하다.'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위법한 행위더라도 책임이 없을 수 있다.'의 핵심을 잡으셨다면 정말 잘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선원 A의 행위는 구성요건에도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이 매끄럽지 않으셨다면 다시 화제를 중심으로 복습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내용은 사회탐구 과목인 '정치와 법'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라는 이름을 통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와 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하나도 어려움 없이 푸셨을 겁니다. 정치와 법을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도 이 내용은 교과 내에 있는 개념이니 이 지문을 통해 익히신다면 배경지식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1. 사례에 관한 윗글의 이해로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 사례는 '카르네아데스의 널' 상황입니다. 글 전체가 이 예시를 중심으로 서술되었으니 사실상 전체적인 내용 이해 문제네요. 범죄의 성립요건을 떠올리며 선지를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① 선원 A나 선원 B의 행위는 모두 위난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바로 정답 선지입니다. '위난을 벗어나고자 한 것'은 말 그대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라는 거죠? 선원 A의 행위는 널판을 붙잡은 것, 살기 위해 선원 B를 바다에 빠트린 것입니다. 선원 B의 행위는 널판을 붙잡은 것만 있네요. 모두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 행위입니다. 4문단에서도 두 선원의 행위 모두 위난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혹시나 '위난을 벗어나고자 한 것'만을 보고 긴급피난을 적용하셨다면 해당 개념의 정의를 놓치신 거예요. 긴급피난은 위난을 벗어나려는 행위 + 자신의 권익보다 낮은 권익을 침해할 때 적용된 겁니다. 뒤의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선지 포인트 - 화제 이해하기, 긴급피난의 정의

② 선원 B가 만약 선원 A를 밀어 빠져 죽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범죄가 된다.

→ 선원 B와 선원 A는 정확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선원 A는 선원 B를 바다에 빠져 죽게 했지만 유책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었죠. 선원 B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지 포인트 - 화제 이해하기, 범죄의 성립요건 이해하기

③ 선원 A와 선원 B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성요건은 형법에 특정 행위가 범죄라고 기술되어 있는가를 고려하는 거였죠. 선원 B의 행위는 널판을 잡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반면에, 선원 A는 선원 B를 물에 빠트려 죽게 했으니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지문에서도 확인했었죠?

#선지 포인트 - 화제 이해하기, 구성요건 이해하기

④ 선원 B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 선원 A의 행위가 형법상 비난받지 않는 것은 맞으나, 원인이 틀렸네요. 선원 A의 행위가 형법상 비난받지 않는 이유는 유책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윤리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비판과 법적 비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선지 포인트 - 화제 중심 읽기, 범죄의 성립요건

⑤ 선원 A가 선원 B를 살리는 선택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윤리적으로 드높은 덕행이라 할 수 없다.

→ 만약 선원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선원 B를 살린다면 그것은 선행, 좋은 행위라고 했습니다. 선원 B를 살리는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윤리적으로 드높은 덕행이라 할 수 있겠네요.

#선지 포인트 - 납득해야 할 세부정보

2. ㉠,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성립하는 경우를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념들의 정의를 중심으로 선지를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이
㉡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모두 '현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공통점을 잡았었죠. 차이점은 '위법한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인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인지'로 잡았습니다. 이를 떠올리며 선지를 판단해볼게요.

#참고 문장 (1)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문장 (2)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다.

→ ㉠은 '선원 A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이'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위법한 행위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하죠. 따라서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면서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해야겠습니다.

② ㉡은 선원 A의 행위가 현재 자기에게 닥친 침해를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번 선지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원 A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려면 자기에게 닥친 위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겠죠.

③ ㉢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 ㉢은 '선원 A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입니다.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면서 보호받을 권익보다 침해한 권익이 작아야 한다는 것만 고려했었죠. 따라서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은 ㉠의 경우겠죠?

④ ㉠은 선원 A의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그의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따져야 결정될 것이라고 볼 것이다.

→ ㉠은 선원 A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책임을 고려할까요?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긴급피난은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개념이었어요. 책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21.11 모델링&렌더링 지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모델링을 물어보면서, 뒤에는 렌더링의 내용을 넣어서 선지를 구성했어요.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이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긴급피난의 정의를 통해서 파악하셔도 좋고 범죄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파악하셔도 좋았습니다. 어찌 됐건 화제를 중심으로 읽었다면 쉽게 해결했을 선지입니다.

⑤ ㉡과 ㉠은 모두 선원 A의 행위가 현재 직면한 위난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점이네요. 현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죠. 현재 직면한 위급한 상황(위난)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3. 윗글에 따를 때, 선원 A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 범죄의 성립요건 중 '유책한 행위'에 대해 묻는 선지입니다. 선원 A의 행위는 구성요건, 위법성에는 해당되지만 책임이 없어 범죄로 성립되지 않았었죠.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선지를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원 A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선원 A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이유가 틀렸습니다. 선원 A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서였어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책임과 상관없이 범죄가 아닌 것이죠. 또한, 선원 A의 행위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②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적법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선원 A는 책임이 있다.

→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적법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까지는 크게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선원 A는 책임이 없어 선원 A의 행위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았어요. 선원 A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선원 A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남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 여기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남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된다는 것은 선원 A의 행위가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원 A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었죠? 그 후에 유책한 행위인지를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선원 A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은 이미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④ 유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선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따지지 않고 책임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 잘못된 포인트가 너무 많네요. 우선, 선원 A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따지지 않고 책임의 문제를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방위를 먼저 따진 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책임의 문제를 검토하였죠. 또한, '유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책임과 위법성은 아예 다른 영역입니다. 유책하지 않은 행위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⑤ 선원 A의 행위가 위법한지는 따져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적 판단인 데 반하여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우선, 위법성은 개인의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판단하였어요. 따라서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적 판단'이라는 것은 적절합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책임은 법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는 거였습니다.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과는 별개로 구분하자고 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선원 A의 행위는 법적 비난 가능성은 없지만, 윤리적인 비판은 가능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법적 비난 가능성과 윤리적 비난 가능성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하였으니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